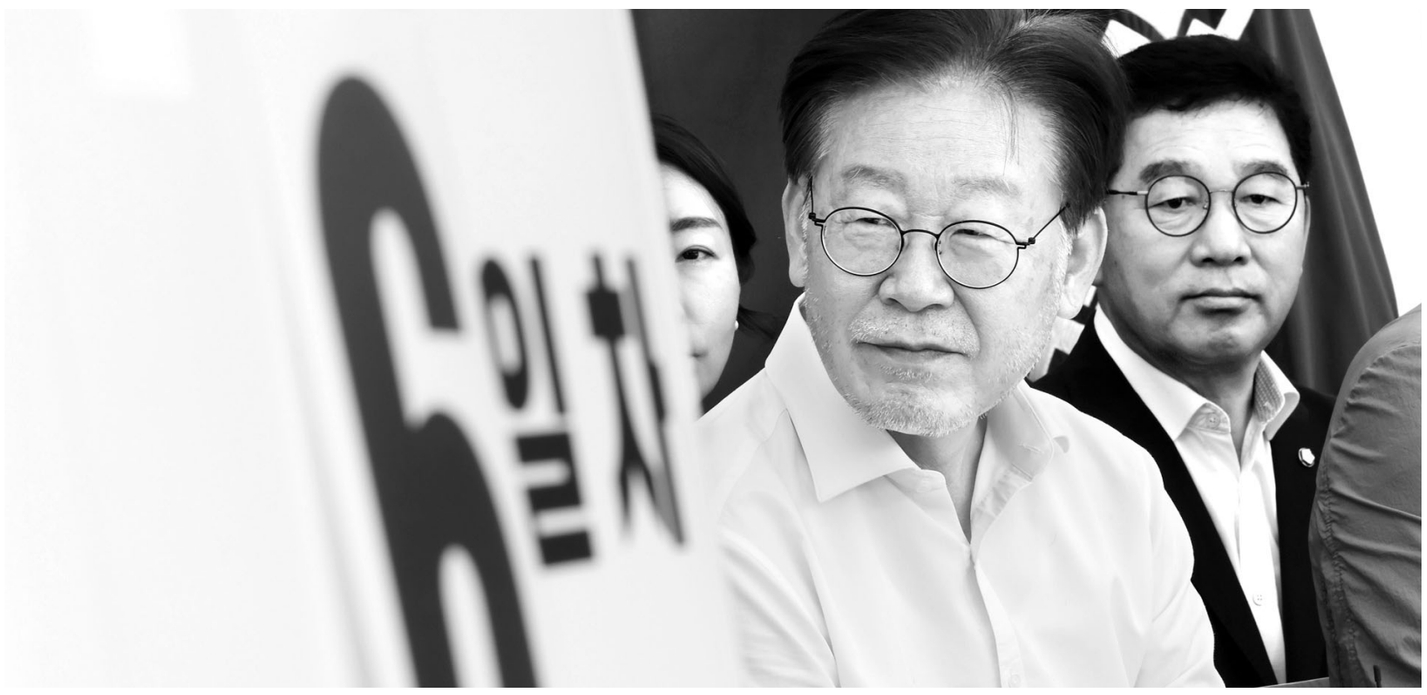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 "군부독재 군홧발 자리 검사독재 칼날이 대신"

단식 6일째…"패배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늘 앞으로 나아간다"

"윤석열 정부 '新 내선일체' 추구"…민주, 연일 대정부 강경 메시지



5일 국회에서 6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6일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강한 메시지를 통해 당심과 민심의 결집을 이끌고 검찰 수사에 맞서 단식 정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 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면서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 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가 민생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며 "'신(新)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고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주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해묵은 이념 타령이 아닌 국격을 높이는 방향 모색"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편향된 '이념 전사'가 돼 역사 왜곡과 국격 추락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 최강욱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말장난'하는 게 문제"라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는 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념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민족 정체성이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여권 비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이 분명하고 법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탄핵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의원은 "장관이 결재한 결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총리는 아닐 테고 대통령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의 탄핵 발언으로 여야 의원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강경 메시지가 민생을 덮으면서 오히려 민심의 피로감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경 메시지만 고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박광온 "이균용, 넘어야 할 산 많고도 높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유로 "먼저 (과거 이 후보자의)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은 대법원의 독립성"이라면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치러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를 언급,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 1440억원 투입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총 1440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산물 할인행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3개 분야에 쓰인다.

전국 9300여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고, 인당 최대 4만원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상품권을 이달까지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비비 편성에 따라 연말까지 매주 평균 5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전통시장 9곳에서 열렸고, 오는 15일부터 3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국방장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 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우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 "나주시 축산악취 개선 13억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공모)'에 나주시 일원이 확정돼 국비 및 융자로 총 13억여원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분뇨 정화시설, 바이오커튼,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를 지원해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방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축산농가 주변 주거환경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나주는 혁신도시 정착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 도시 팽창에 따른 악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실제 빛가람동 주변 3Km 이내 축사 및 민간 퇴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나주시는 전남도 전체 축산 규모 1위로, 닭·오리 등 가금은 전라남도 전체의 23%, 돼지 13%, 한육우는 9%가 나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융자금 확보로 분뇨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축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개선책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